

음악비평의 교육적 의의와 학습 방법 연구

박진홍*

음악비평 교육은 미학적·사회학적·양식적 가치기준에 따라 음악과 관련된 제반 현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으로서 음악활동의 마지막이 되며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음악 비평 활동을 통한 순환 구조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들이 스스로 향유하는 음악과 주변의 음악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도적으로 자신만의 음악적 삶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반활동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음악 비평 교육의 음악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고, 8가지의 비평의 유형에 따른 음악 비평 교육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 주제어 : 음악비평, 음악비평 교육, 음악 감상학습, 음악 교수·학습 방법

차 례

I. 서 론

II. 음악비평의 개념과 교육적 의의

1. 음악비평의 개념
2. 음악비평의 교육적 의의

III. 유형에 따른 음악비평 교육의 방법

1. 학문적 성격의 전문비평과 활동
2. 저널리즘적 비평과 활동
3. 보고서 형식의 비평과 활동
4. 홍보성 비평과 활동
5. 문화비평과 활동
6. 분석적 비평과 활동
7. 인상비평과 활동
8. 비교비평과 활동

IV. 결 론

* 부산교육대학교,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동래초등학교 교사

I. 서 론

현대인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음악을 듣고 있다. 그렇지만 감상하는 음악과 자신을 둘러싼 음악 환경에 대한 명확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음악을 선택하고 감상함에 있어서 ‘좋음과 싫음’의 단순한 가치평가의 논리만이 활용되고 그로인해 우리의 음악문화가 더욱 감성적 자극에만 충실하도록 변해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음악의 내적 성질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비평적으로 음악을 듣는 것은 아셴브레너(1974)가 지적하듯이 따뜻한 음악의 샤워를 즐기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감상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학교 음악 교육을 통하여 추구하는 음악적 표현력과 이해력, 음악의 생활화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현대는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등의 다양한 문화 예술의 발달로 인하여 스스로 원하는 예술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향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영화는 다른 어느 문화 예술의 장르 보다 활성화되고 향유층을 많이 가진 장르 중 하나이다. 한 편의 영화가 개봉되고 나면 전문가나 개인을 불문하고 인터넷과 신문, 방송을 비롯한 공개된 게시판에 수없이 많은 평가들이 올라오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악 특히 클래식이라고 불리는 음악은 그렇지가 못하다. 따뜻한 음악의 샤워를 통해 기분 좋은 생활의 활력소를 만드는 이들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음악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력과 철학적 사유를 통해 스스로의 삶에 보다 의미 있는 한 장면을 만들어 내는 경우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음악비평은 음악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식적·미학적·사회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활동이다. 음악비평 활동은 학생들이 음악교육을 통해 학습된 다양한 음악적 지식과 실기능력을 바탕으로 음악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기르고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음악적 환경에 대해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함으로써 음악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본 논문에서는 음악비평 교육의 음악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고, 비평의 유형에 따른 음악비평 교육의 방법들을 예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음악비평의 개념과 교육적 의의

1. 음악비평의 개념

비평(Criticism)은 사전적으로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를 분석하여 가치를 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의 평가는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가치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론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음악비평은 음악연주나 작품에 대해 미학적·양식적·사회학적 기준에 따라 질적인 평가를 하는 음악학의 한 분야로, 현재 역사적 음악학과 체계적 음악학의 연구 결과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분야인 응용음악학에 속한다. 넓은 의미에서 음악비평은 광범위한 음악·문화적 문제들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접근하는 분야로 이해되며, 오늘날은 일간지, 음악잡지, 라디오나 TV 등의 매체를 통해서 자주 접할 수 있다. 음악비평의 주요 대상은 창작된 작품과 연주이며, 이와 함께 작곡가, 작품양식, 음악문화의 사회적 현상, 음악 미학적 문제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오희숙, 2004, p. 309). 넓은 의미로 음악비평을 하기 위해서는 음악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형식상의 특징, 화성적 구조, 주제와 그에 따른 발전의 양상 등에 대한 통찰력과 음악을 둘러싼 미학적, 사회학적, 양식적 특징에 대한 깊이 있는 해안을 필요로 한다. 좁은 의미로는 감상한 음악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이론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언어로 표현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단순히 다양한 감상활동의 한 부분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음악 감상은 본질적으로 음악을 수용하는 활동이다. 다시 말해서 음악 작품을 향수하고 작품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내면화하는 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느낌을 미술적, 신체적,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어디까지나 감상자가 음악 작품의 수용과 내면화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음악비평은 음악 작품에 대한 분석과 의미해설, 가치의 규정 등이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감상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치 판단 작용이 수반된다. 그러나 감상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여 감상자와의 가치판단에 동조하도록 하는 설득의 목표를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상 활동과는 구별된다.

음악 감상과 음악비평이 구별되지만 둘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 음악비평이 가지는 언어적 표현성에 따라 다양한 기법적 특징과 가치를 지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 중의 하나가 뛰어난 감상력이다. 감상과 비평은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뛰어난 감상력을 통해 음악 비평의 타당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서술된 음악비평은 음악가들의 창작활동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부족한 점을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지적, 비판하고 작곡가로 하여금 보다 창조적인 길로 나아가게 하며, 청중들에게는 음악 감상의 안내자로서 음악의 가치와 사상적 의의를 인식하게 하고 그들의 감상 수준을 높여 주어 더 깊이 있고 폭넓은 음악의 향수를 누리게끔 해 줄 수 있다(박휘락, 2003, p. 58).

음악비평이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치 평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음악학의 분야들과 관련 학문들은 음악비평을 위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음악비평은 음악학의 분류상 응용음악학의 한 분야로 모든 음악학의 영역이 활용된다. 특히 음악비평에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적 토대는 음악 미학과 음악 사회학, 그리고 음악사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학문적 기반은 일반 음악비평에서 뿐만 아니라 음악교육에서도 적용된다.

DBME(Discipline-Based Music Education)은 음악학습에 중요한 4가지 학문적 기반을 창작, 음악미학, 음악사, 음악비평에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나친 기능·이론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음악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의 4가지 학문에 기반으로 한 음악교육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브루너의 학문중심 교육과정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4개의 학문 영역의 유기적인 관

계를 파악하고 음악에 접근함으로써 음악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음악 교과와 지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Patchen, 1996).

음악미학은 음악과 음악의 아름다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철학적 연구와는 다르게 음악미학은 예술작품으로서의 음악에 관심을 가지며, 여기서 나타나는 음악의 독특한 특성, 다른 예술과는 구별되는 음악의 특별한 아름다움에 대해 연구한다. 또한 음악미학에서 중요한 점은 음악을 감상하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그 원인과 과정을 연구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다. 즉 “아! 이 음악 너무 아름답다.”라고 감동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음악미학은 어떤 이유에서, 어떤 요인에서, 어떤 배경에 의해 그것이 아름다운가를 살펴본다. 또한 음악의 가치평가, 즉 훌륭한 음악, 예술적 음악을 가려내는 작업도 미학에서 한다(오희숙, 1999, pp. 27-28). 한슬릭은 형식주의에 근거하여 바그너를 공격하고 브람스의 음악을 높이 평가했다. 이효순(1994)은 음악미학을 연관주의(Referentialism), 형식주의(Formalism), 표현주의(Expressionism), 절대표현주의(Absolute Expressionism), 통합적 관점으로 음악학습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있어 다양한 관점으로 음악을 바라보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음악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음악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서술은 여러 가지 다른 양상을 가질 수 있다. 즉 음악 미학은 음악비평의 방향을 결정지어 주는 가장 필수적인 학문으로 음악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음악에 대한 안목이 형성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음악사를 통한 음악의 가치 판단의 과정은 작품이 가지는 시대적, 문화적, 양식적으로 다양한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음악이라는 예술 영역 역시,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변화해 간다. 그것은 작품을 생산하는 작곡가가 사회 속에 살고 있고, 그 작품을 향유하는 청중도 사회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음악 역시 사회 속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작품이 탄생하는 시점의 사회적 상황들은 음악비평 활동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와 더불어 음악이 연주되는 현재 시점에서 그 작품들이나 연주가 가지는 의미들도 있다.

음악을 삶 속에서 향유하는 우리는 작품 생산 당시의 사회적 현상을 통해 우리의 지적인 욕구를 채우고 음악을 이해하는 바탕을 마련하며 주지만 현 시점의 사회적 현상을 통해 그 음악에 대한 가치 판단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음악비평교육을 위한 사회학적 접근은 주로 학생들이 접해있는 음악 문화적 상황과 연결되어 지도될 수 있다. 음악비평 활동의 유형을 통해 살펴본다면 문화비평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학생들은 음악이 음악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탄생하고 변화해 감을 다양한 예를 통해 인식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감상하는 음악작품, 청소년 음악 문화의 양상, 우리 음악의 가치 등을 고민하고 그 결과를 서술함으로써 바람직한 음악 문화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음악 미학의 방향성 탐색과 음악사를 통한 근거의 확보를 통해서 음악 비평은 뛰어난 음악에 대한 가치 판단에 명확성을 부여하고 글의 설득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 미학과 음악사, 그리고 음악 비평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다루어져야 하며, 음악비평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의 수준과 환경에 따라 음악과 음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2. 음악비평의 교육적 의의

예술비평은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부족한 점을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 지적·비판하여, 작가로 하여금 보다 사색하게 하고 창조적인 길로 나아가게 한다. 궁극적으로 예술가에게는 예술창작의 방법과 내용, 그리고 창작의 방향과 철학에 대해서도 비판·언급하여 작가의식의 고양에 도움을 준다. 이 같은 비평의 기능은 예술의 수용자에게도 똑같이 기능하여 훌륭한 스승으로서 예술 감상의 안내자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함으로 비평가는 감상자에게 예술가의 작품을 자상하게 분석·평가하여 예술적 가치와 사상적 의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그들의 감상 수준을 높여 주며 더 많은 예술향수를 얻을 수 있게 이끌고 봉사한다(박휘락, 2003, p. 58).

음악 감상은 음악 작품을 향수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내면화시키는 활동

이다. 이는 곧 음악 작품을 통하여 감각적으로는 유익한 쾌감을 얻고, 음악가와 의 교감을 누리며, 이를 확대하여 감상자의 정신적 성장과 자기 창조를 이룰 수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음악비평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음악 작품의 창작과 연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평 활동이 특히 학습자에게 있어서 설득과 주장이 주된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음악 비평은 음악 작품이나 연주, 음악 문화가 가진 가치를 발견하고 느끼며, 이해하는 활동으로 서술된 결과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조정함으로써 음악과 음악을 둘러싼 제반 환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내면화시켜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음악작품과 연주의 비평은 근본적으로 감상활동을 선행하게 되므로 인해 감상활동과 비평 활동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비평의 내용에는 음악 감상활동의 영역 밖에 있는 활동들이 존재한다. 즉, 음악문화에 대한 서술, 음악 작품의 사회적 가치, 음악회의 프로그램 구성의 분석 등의 내용은 감상학습의 내용과는 분명히 차별된다. 또한 감상과 비평의 유사한 점에도 불구하고 감상이 음악작품과의 동화라면, 비평은 음악작품과 음악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감상과는 구별되는 활동이다.

이러한 점에서 음악비평은 대부분의 음악과 관련된 활동이 일어난 후 행해지는 연계활동이 될 수 있으며, 음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을 다루는 포괄적인 활동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음악비평 교육의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상활동을 보다 풍부하고 의미 있는 학습으로 유도할 수 있다. 아렌트브레너(1974)에 따르면 올바른 음악 청취는 본래 비평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비평가는 이상적인 감상자이다. 이 말은 감상과 비평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효과적인 음악 학습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음악을 집중하여 듣는 능력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를 탐구하는 방법은 음악 학습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초적인 음악 활동이다. 음악 감상은 음악의 미적 특성과 의미를 이해하고 즐기는 행위로서, 음악을 형성하고 있는 음악적 요소들, 즉 리듬, 가락, 화성, 음조직, 셈여림, 빠르기, 음색 등

모든 음악적 표현 요소에 대한 그 특징과 생성 원리의 구체화된 의미를 지각하고 감응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이연경, 1997). 그래서 감상활동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음악비평의 선행 활동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상적인 감상자들은 음악을 자기 생활 속으로 끌어들여 의미를 부여하며 이를 통한 삶의 긍정적 변화를 꾀할 수 있다. 그래서 감상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음악 교육 활동이다.

음악비평 교육은 음악 감상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장기범(2000)은 음악 감상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감상 학습이 교육현장에서 도외시 되고 있으며 감상을 위한 학생들의 집중력이나 이해능력의 부족과 교사의 감상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부족을 들고 있다. 단순히 따뜻한 음악의 사위를 위해서라면 무비판적으로 듣는 수준(hearing)에서 그치겠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이상적인 감상을 위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음악 요소의 변화를 감지하고 분석, 판단하여 내면화시킬 수 있는 집중력과 이해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감상 활동이라는 것이 귀를 통해 들리는 소리를 수용하는 활동으로 감상자의 적극적인 감상태도가 없으면 귀로 음악이 들어간 이후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수동적인 감상의 태도를 최소화 하고 적극적인 감상 태도를 가지게 하기 위해 감상을 돕는 다양한 활동들이 개발되고 교육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여기서 비평의 개념은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음악 교과와 일부 활동의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한 다양한 활동이 고려되고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활동 중심의 감상교육은 학습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음악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러나 자칫 지식과 이론 위주의 학습 활동이 된다거나 단순히 작품이 가진 의미의 재생산, 작품의 주변적 요소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음악비평 교육은 감상학습의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감상교육에서 교사의 경험 부족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음악 비평은 교사가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음악비평이라는 활동은 교사들 역시 거의 경험하지 못한 활동으로써 무엇을 제시하고,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음악비평 교육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 자신이 음악비평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다양한 비평문들을 읽고, 스스로 작성해 보는 자기 성찰의 기회가 필요하다.

둘째, 음악관련 정보의 처리 능력 및 사고력 신장을 신장함으로써 음악에 관한 통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비평 활동은 감상활동을 통하여 음악 내적인 특성과 음악 외적인 상황을 탐색하여 논리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나타낸다. 이는 곧 음악 학습의 여러 요소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을 통해 가능하다. 학생들은 학습된 음악 요소를 감상을 통하여 통찰하고 그에 대한 가치 평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음악 이해 요소에 대한 학습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연주에 대한 평가를 자기화하여 학습자 스스로의 연주 기술에 피드백 함으로써 음악 실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음악비평 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음악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가치 평가의 대상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보 수집능력과 분석능력, 사고력이 향상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에서 서술되는 다양한 유형에 따른 가치 평가의 결과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하나의 음악적 대상에 대한 사고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치 평가가 가질 수 있는 주관성의 한계와 편협한 사고에서 탈피할 수 있다.

또한 음악비평의 과정을 통하여 보다 폭넓은 음악적 지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피드백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집중력과 판단 능력이 향상된다. 이를 통해 음악을 자신의 삶 속에 보다 깊이 있게 자리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적극적인 음악 문화의 향유 계층으로 성장하게 된다.

셋째, 다양한 음악적 자극에 대한 판단 능력과 창의적 수용능력이 길러진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수 없이 많은 음악적 자극을 받아들이게 된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단순한 듣기(hearing)의 수준에서 머무를 수도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가 개입되어 감상(listening)의 수준으로 이행될 수 있다.

수많은 음악적 자극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다양한 시대의 음악들이

혼재되어 있어 어떠한 일관성도 통일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무분별한 음악적 자극의 수용은 우리 삶에 가벼운 청량음료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

음악비평 활동은 음악에 대한 학생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수없이 많은 음악적 자극에 대해 스스로에게 유의미한 자극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동적 태도를 길러낼 수 있다.

다섯째, 음악에 대한 통찰력과 창의력 향상 통해 전체적으로 조화 있는 음악성을 기를 수 있다.

음악비평은 학생들이 음악을 다양한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작곡가, 연주가, 지휘자 그리고 스스로 음악을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선택된 다양한 음악적 현상들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비교, 대조, 해석의 과정을 배움으로써 연주, 음악사, 음악미학으로부터 습득한 정보들을 연주에 적용시킨다(Patchen, 1996, pp. 19-26).

음악을 학습하는 학생들 스스로의 다양한 방식의 평가는 자신의 연주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작품의 평가나 동료의 평가에 대한 가치 평가의 과정에는 제재곡의 해석과 분석, 연주의 테크닉 등의 다양한 음악적 요소와 연주 요소가 포함된다. 평가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인정하는 평가의 기준이 먼저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고, 평가의 기준에 따라 제시된 음악적 방법들은 자기가 바라보는 음악의 양상으로 이는 스스로의 연주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 음악문화를 바람직하게 향유하고 나아가 음악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전국의 공연장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대부분 연주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나도 평론가’와 같은 형태의 ‘참여 게시판’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연주를 감상한 사람들이 그 연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올리도록 해 놓은 공간이지만 실제로 그곳에 글을 남기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다.

요즘은 클래식 음악에서도 동호회가 결성되고 연주단체의 후원회와 같은 조직들이 생기고 있다. 이들은 연주단체의 가장 적극적인 후원자이며 평가자들이다. 그들은 음악을 생활화하고 음악을 향유하는 계층으로 음악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바람직한 음악애호가라 할 수 있다.

음악비평 활동은 음악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음악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 및 통찰력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음악에 대한 태도변화는 음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습관형성으로 이어진다. 음악 향유로의 태도 변화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며 나아가 우리 음악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

Ⅲ. 유형에 따른 음악비평 교육의 방법

음악비평은 글을 읽는 독자의 음악에 대한 지식의 정도, 직업, 연령, 장소 등의 다양한 요소에 의해 서술 방식이나 다루는 내용이 달라진다.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비평의 방식을 선택하고 서술하는 것은 학생들이 비평 활동을 보다 즐겁게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음악비평은 서술방식 및 특성에 따라 전문적 비평, 저널리즘적 비평, 보고 형식의 비평, 홍보성 비평, 문화 비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음악 비평의 방식에 따라 분석적 비평, 인상 비평, 비교 비평 등으로 구분된다(홍정수 외, 2004, p. 309). 다양한 유형에 따라 비평을 하는 것은 문장의 서술에 대한 기술적 부분이 필요하므로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글들을 읽고 특징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비평의 유형과 특징, 비평문을 작성하기 위한 학습활동은 다음과 같다.

1. 학문적 성격의 전문비평과 활동

학문적 성격의 전문비평은 비평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전문적 음악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 및 연주의 가치평가 문제를 다루는 학문적 성격의 비평이다. 음악의 가치평가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러한 종류의 비평은

음악학의 한 분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음악미학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학생들이 가진 미학적 지식이나 음악 사회학적 가치는 전문가들의 그것에 비해 매우 단편적이며 깊이가 없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문적 성격의 전문 비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음악비평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을 전문적인 음악 비평가로 기르기 위함이 아니고 음악에 대한 통찰력과 창의적 수용력을 기르고 음악을 생활 속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향유함에 있으므로 전문적 비평이 강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음악회 프로그램 구성의 특징을 파악하여 가치를 평가하기

⇒활동 : 음악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포되어 있는 레파토리의 공통점이나 구성상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한다. ‘바로크 시대 작곡가들의 작품만으로 연주된다.’, ‘건반악기의 변천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곡들이 시대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특징을 파악하고 토의하거나 음악회의 가치에 대해 서술한다.

-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이 가지는 음악사적 가치에 대해 논하기

⇒활동 : 환상 교향곡 작곡 당시 베를리오즈의 행적, 환상 교향곡의 표제, 표제교향곡의 의미, 고정악상의 의미와 예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가치를 찾는다.

- 현대 음악의 발전과정에서 다양한 소음이 음악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발생한 현상에 대해 서술하기

⇒활동 : 소음이 음악으로 들어오게 된 시기와 당시의 음악적 환경, 소음을 활용한 다양한 음악의 예, 소음을 음악으로 활용한 작곡가들 자신이 서술한 작품의 설명, 영화 음악이나 대중음악, 클래식에서 소음이 사용됨으로써 효과적인 표현을 만들어 낸 작품의 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모습을 추측해 본다.

위에 제시된 활동의 예는 일반적인 전문비평의 방식으로 학생들은 음악 전체에 대한 통찰력의 부족과 비평경험의 부족으로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연주회의 프로그램을 두고 교사와 함께 하나 하나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비평문의 서술방식을 습득하고 음악자체와 연주회, 음악을 둘러싼 사회적 의미 등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다.

2. 저널리즘적 비평과 활동

저널리즘적 비평은 19세기 들어 시민계층의 성립 및 확산으로 음악문화가 대중화되면서, 교양 있는 음악청중 뿐만 아니라 음악애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저널리적 성격의 음악비평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비평은 전문적 음악가보다는 음악애호가, 문필가 등에 의해 폭넓게 시도되었고, 음악과 청중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음악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19세기에 활동한 하이네, 버나드 쇼의 작업은 이러한 예에 속한다.

저널리즘적 비평의 독자는 잡지를 읽는 사람들로써 글의 내용 속에는 연주회나 음악에 대한 정보와 사회적, 문화적 가치, 연주회가 열릴 당시의 상황 등이 골고루 제시되어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연주회의 분위기나 사회, 문화적 가치 등을 간접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저널리즘적 비평문을 작성할 때에는 제목, 작곡가, 빠르기, 표제의 내용, 박자 등의 단순한 곡의 정보를 비중 있게 서술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연주회의 경우 작곡자들과 그들의 작품 제목을 쓰고 ‘이러한 작품이 연주되었다.’는 식의 서술도 삼가 하도록 한다. 음악 자체의 정보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정보 매체를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제시될 이유가 없으며, 음악회의 분위기를 전하거나 다양한 음악의 가치를 논하기 위한 자료의 의미를 가지는 선에서 제한하는 것이 좋다.

음악 감상활동, 음악 문화 읽기 활동 등 음악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대상에 대해 토의, 토론, 분석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음악비평 신문이나 음악 비평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된다.

저널리즘적 비평에는 음악에 대한 재치 있는 언어적 표현, 평가 대상에 대

한 신랄한 독설, 과장된 말투, 냉점함, 우회적 표현 등의 다양한 표현 방식이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글을 읽고 형식에 따른 제시 방법을 탐구하여야 한다.

-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을 감상하고 시와 음악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글을 쓰기
⇒ 활동 : 비발디의 음악적 삶을 다룬 간단한 자료, 사계의 곡 설명(원 제 목과 악장 구성의 원리 등), 소네트의 개념, 음악에 시를 활용한 작품과 작품의 설명 등의 자료를 탐색하고 서술한다.

- 음악회를 감상하고 고쳐야 할 점 찾아 쓰기
⇒ 활동 : 음악회 프로그램과, 학습지(음악회를 감상하기 전에 무대 구성, 연주자의 태도, 음악회의 환경적 요소 등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감상 관점이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한다.

음악 잡지나 신문에 게재되는 저널리즘적 형식의 비평은 본고에서 제시된 음악비평의 유형들이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다. 이 형식의 목표는 글쓴이가 비평을 하면서 추구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이 비평문을 작성하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3. 보고문 형식의 비평과 활동

보고문 형식의 비평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음악 및 음악과 관련된 상황을 알려주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비평은 묘사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형식은 객관적 음악 역사를 서술하는 과정의 기초적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가치 평가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음악회를 감상하고 음악회의 내용, 현장의 모습, 연주곡에 대한 느낌, 연주회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기

⇒활동 : 연주회 프로그램, 사진, 입장권, 감상관점이 제시된 학습지를 활용하고, 연주회의 다양한 상황들을 꼼꼼하게 묘사하도록 한다.

- 모듬별로 제재곡을 연주하고 연주를 준비하면서 특히 유의했던 음악요소, 재미있었던 일, 연주에 대한 반성 등을 기록하여 발표하기

⇒활동 : 모듬별 연주를 기록할 수 있는 학습지를 제공하여 연주곡, 연주자를 기록하고 다양한 감상관점이 제시하여 그에 대해 서술할 수 있도록 한다. 연주가 끝나고 다른 모듬 구성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주 당시의 음악과 주변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좋다.

4. 홍보성 비평과 활동

홍보성 비평은 음악에 대해 알리는 과정이다. 즉 작품에 대해서 알리거나 연주회의 특징적 내용과 가치를 홍보하는 글이다. 특히 이런 글에서 포함되어야 할 것은 음악이나 연주회의 분석 및 추론을 통하여 관객들에게 줄 수 있는 다양한 음악적 의미를 미리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홍보하고자 하는 음악작품이나 음악회에 앞서 연주된 작품이나 연주회들의 특징과 공통점 등을 잘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다.

- 인터넷으로 공연장을 검색하여 하나의 연주회를 선택하고, 연주회의 내용과 특징이 드러난 홍보문 작성하기

⇒활동 : 각기 다른 학생들의 음악적 취향을 바탕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음악적 취향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줄 수 있는 음악회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한다.

- 모둠별로 발표할 음악의 특징을 중심으로 초대하는 글쓰기

⇒활동 : 홍보성 비평 활동을 하기 전에 모둠별 연주를 듣고 그 특성과 장
점 등을 파악하여 재치 있고 실감나는 홍보성 비평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5. 문화비평과 활동

문화비평은 음악현상을 사회적·문화적 시각에 접근하여 진단하는 것이다.
음악을 둘러싼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현행의 음악과 교육과정
내에서는 부족하다. 올바른 문화 비평을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등
의 매체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사는 다양
한 자료 제시와 탐구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음악과 관련된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 사고과정과 토론 과정을 조직해야 한다. 이
활동은 특히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이 음악과 깊이 있게 연관을 맺고 있어
능동적인 활동이 필요함을 인식해야하는 당위성을 제공함으로써 음악의 생
활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청소년들의 클래식 공연관람태도에 대해 알아보고 바람직한 공연질서에
대해 논하기

⇒활동 : 공연장에서 청소년들의 관람태도가 묘사된 자료(인터넷이나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관점과 사고에 의한 자료를 탐색
하도록 한다.) 및 학생자신의 경험(학생들 간의 다양한 경험을 토
의 활동을 통해 수집할 수 있으며 본인이 바람직한 관람태도를
어긴 경험이 있으면 그 이유를 등을 토의하여 보는 활동이 필요
하다.)이 나타난 자료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관람태도와 필요성
등을 서술하거나 발표한다.

- 청소년 음악회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청소년 음악회가 되기 위한
공연 내용에 대해 서술하기

⇒활동 : 청소년 음악회의 특성(시기적 특성과 주 관객층, 연주곡, 음악회의 구성상의 특징 등), 관람 후기, 시기별로 연주된 청소년 음악회의 현황 등이 제시되고, 다양한 학생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자신이 가진 생각과 비교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모습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한다.

- 청소년들의 장르별 음악 감상 현황표를 살펴보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서술하기

⇒활동 : 선행 연구된 자료 중 청소년들의 음악 감상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학급의 학생들이 다양한 음악 장르를 어떠한 형태로 감상하고 있는지 표로 작성함으로써 분석할 수 있는 학습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상황과 음악 감상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긍정과 부정의 가치 판단을 하도록 한다.

- 인터넷을 통한 음악파일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기

⇒활동 : 음악 파일의 불법 다운로드가 확산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도 자료나 통계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생각을 서술하도록 한다. 이러한 유형의 음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건전한 음악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가치관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분석적 비평과 활동

분석적 비평은 작곡 기법적으로 작품을 세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그 작품에 대해 논하는 방식을 지칭하고, 전문적 비평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 활동은 음악의 이해 요소가 충분히 습득되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이해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과 분석적 비평 활동을 통해 이해 요소의 효과적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다.

- 음악을 감상하고 악곡에 나타난 셈여림과 가락의 진행, 꾸밈음이 주는 효과를 서술하기

⇒ 활동 : 표제음악의 표제를 음악적으로 나타냄에 있어서 사용된 셈여림과 가락의 진행(예: 음계의 상향 진행과 하향 진행), 꾸밈음의 예를 다양하게 감상함으로써 표제의 내용과 음악 요소의 관계를 파악하여 서술한다.

7. 인상비평과 활동

인상비평은 “비평에서 분석은 필요 없다.”고 보면서, 체계적 이론이나 가치 기준을 거부하고, 직접적인 관조에 의한 비평가의 경험에 의해 비평하는 방식을 택한다. 비평 활동은 개인의 감성이라는 주관적 관점을 논리적 서술을 통하여 객관화 시켜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상비평은 가장 주관적인 비평 활동이라 할 수 있고, 음악과 학습활동에 제시된 비평적 활동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형이다. 그러나 음악 비평 활동을 통해 우리는 음악에 대한 통찰력과 창의적 수용능력을 습득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인상 비평만을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 제재곡을 감상하고 느낌을 서술하기
- 현대 음악 작품을 감상하고 느낌을 나타내기
- 여러 가지 표제를 사용하여 창작된 작품을 모둠별로 발표, 감상하고 표제와 창작곡의 관계 및 느낀 점을 서술하기

8. 비교비평과 활동

비교비평은 하나의 기준 아래 두 개 이상의 비교 대상을 견주어 본다. 예를 들면 한슬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형식주의 미학의 기준에 의해 바그너의 음악과 브람스의 음악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비교비평은 1960년부터 뉴

육 타입즈의 음악비평가로 활동했던 쉰버그(Harold C. Schonberg, 1915-)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는 비평에서 비교는 중요한 요소라 말하면서, 작품, 연주자, 시대 등을 비교했다(홍정수 외, 2004, p. 317).

- 같은 곡을 실제 연주를 녹음한 것과 컴퓨터 음악 파일로 만들어 진 것을 비교하여 듣고 차이점과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기

⇒활동 : 컴퓨터 음악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미디파일, 음원 등의 특성을 이해하고 실제 연주와의 표현, 음색 등의 차이를 구별하도록 한다. 아울러 컴퓨터 음악이 사용되는 다양한 예들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음악에 대한 가치를 인식, 판단한다.

- 각각 제재곡을 불러보고, 여러 사람의 연주를 듣고 특히 잘 표현된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 해보자.

⇒활동 : 가창 학습을 할 때, 제재곡의 선율적 특징이나 가사와 선율과의 관계, 발성, 표현법, 음색 등에 대해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래 부르는 다른 학생들의 연주를 평가하되,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도록 한다.

- 다양한 극음악의 특징을 알아보고, 비교하여 나타내기

⇒활동 : 오페라, 뮤지컬, 판소리 등 극음악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장르의 특징을 이해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한다.

위에서 제시한 비평의 유형별 학습 활동의 예는 가능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다양한 관점에 따라 변형되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비평 활동의 유형을 음악시간에 활용함은 목적은 음악의 가치 평가라는 단일한 목표를 향해 있지만 방법적으로 다른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각 유형이 가지는 특징에 따라 서술의 방식이나 다루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비평문을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생각과 느낌,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유형만이 사용될 수도 있지만 둘 이상의 유형이 혼합 활용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수·학습 과정의 구성에서 적절한 활동을 학습내용과 연결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IV. 결 론

음악 수업은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통하여 음악 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음악이 가진 가치를 인식하며 즐겨 음악을 향유하는 태도를 기쁨으로써 음악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스스로 향유하는 음악과 주변의 음악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도적으로 자신만의 음악적 삶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악비평 교육은 미학적·사회학적·양식적 가치기준에 따라 음악과 관련된 제반 현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으로서 음악활동의 마지막이 되며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음악비평 활동을 통한 순환 구조는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교과에서 목표하는 바들을 이룰 수 있는 명확한 연결고리가 만들어 진다.

현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는 감상학습의 활동 중 하나로 '비평문을 작성해 보자.'는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학생들의 음악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음악에 대한 철학을 갖게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철학이 부재한 시대를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입시에 중요하지도 않은 음악에 대한 철학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하기에 더욱더 음악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현상에 대한 사고를 통한 가치정립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음악 비평 교육은 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가치를 논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길러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비평 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음악비평의 유형에 따른 학습 활동에 대해 제시하였다. 다루어진 비평의 유형은 다양한 음악 비평들을 몇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함으로써 정리된 것으로 훨씬 세분화된 유형

들이 존재할 수 있고 수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음악 수업의 마지막을 비평 활동으로 일관할 필요는 없다. 음악 수업에 있어서 비평 활동의 양적 확대 보다는 질적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음악 비평 교육의 필요성은 막연하게 동감하면서도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음악비평 교육의 이론적 토대나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1998).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2005).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박휘락 (2003).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서울: 시공아트.
- 장기범 (2000). **초등 음악감상 교육의 방법론적 고찰**. 한국초등교육 11호.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 홍정수, 오희숙 (1999) **음악미학**. 서울: 음악세계.
- 홍정수 외 (2004). **음악학**. 서울: 심설당.
- 國安洋. (1987). **음악미학입문**. 김승일 역. 서울: 삼호출판사.
- Aschenbrenner, K. (1974). **The concepts of criticism**. Boston: D. reidel publishing company.
- Elliot, D. J. (1995). **Music matt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ichels, U. (2000). **음악은이**. 홍정수, 조선우 역. 서울: 음악춘추사.
- Patchen, J. (1997). **Overview of Discipline-based music education**. Music Educators Journal, 84.
- Reimer, B. (1997). **음악미학**. 안정모 역. 서울: 다라.
- Stolniz, J. (1960). **Aesthetics and Philosophy of Art Criticism - A Critical Introduction**. Houghton Mifflin.

ABSTRACT

A Study about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and Learning Methodology of Music Critiques

Park, jin-hong

Education for music critiques is like a commencement for musical activities; it is the last stage where the values of all sorts of phenomena concerning music a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set of values of aesthetics, social studies and styles, while paving yet another way for new musical activity. The circular structure created by music critiques can serve as a fundamental activity that enables students to enjoy music on their own and proactively cope with the music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m; and thus help them to initiate the creation of original musical lives for themselves. The present study looks at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education for music critiques and suggests a set of procedures for education for music critiques according to the eight types of critiques i.e., professional, journalistic, report-style, PR, cultural, analytical, impression, and comparative critiques.

Key Words: music critique, education for music critiques, music appreciation studies, music teaching & learning methodology